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라!(도약28)
본문: 대상 16:1-6

우리는 지난 번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신앙행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떠한 선한 목적을 위해 일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다가,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시행하여 자신이 준비한 장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와 제사장들과 레위인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할렐루야!

성경 시편 150편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윗의 73개 또는 75개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질곡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 삶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했습니다. 예배를 목말라 했습니다. 그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자였기에, 예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말년에 드린 감사 및 헌신예배에서는 수송아지 천 마리, 수양 천 마리, 어린 양 천 마리, 무려 3천 마리의 제물을 풍성히 드렸습니다(대상 29:21). 이처럼 그는 예배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싼 대가도 괘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건축 또한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한 마디로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예배할 때, 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축복된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1. 첫째,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십시오
본문 1-2절 전반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2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예배는 영어로 Worship입니다. Worship은 고대 앵글로색슨어인 'worth-ship' (worth [가치] + ship [상태·신분])에서 유래한 말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예배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은 없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리 진수성찬을 준비하러 분주했어도 꾸중을 들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 마리아가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눅 10:38-42).

과거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고의 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5

장 12-14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올리기에 앞서 몸을 성결케 했습니다.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은 세마포 겉옷을 입었습니다. 다윗 왕 자신도 미리 준비한 베 에봇 예복을 입었습니다(27절). 동시에 찬양대를 철저하게 조직하고 준비했습니다. 8옥타브 음계에 맞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단을 완전무결하게 조직하고 준비시켰습니다(16절-24절). 즐거우면서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한 마디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요 4:23-24).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2. 둘째, 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으로 도약하려면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모셔 놓은 후 백성들을 최대한 축복했습니다. 나아가 전 국민 남녀노소 모두에게 일일이 축복의 선물 또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의 통치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한 다음, 자기 집으로 돌아가 모든 식구들을 축복했습니다(16:43).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상향성과 하향성입니다. 상향적 요소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몸과 마음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향적 요소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은총을 받는 축복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피 흘림(Bleeding)"과 하나님의 "축복(Blessing)"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우리가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드릴수록 하늘의 복이 내려옵니다. 아울러 땅의 기름짐도 함께 합니다.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백성들이 떡과 고기를 받아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본문 2절 후반-3절).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 위를 "시은좌, Mercy seat",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보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육심간에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히 4:16).

3. 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쁨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본문 4-6절 "4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5 그 두목은 아삽이요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맛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벧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6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예배는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식입니다. 사실 진정한 신앙의 꽃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연상해보십시오. 레위인들이 섬기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비파와 수금을 타고 제금을

힘있게 치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앞서 언약궤를 옮겨올 때 있었던 장면 또한 확인해 보십시다(대상 15:26-29).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15장 26절). 큰 규모의 합창단원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오케스트라 팀들은 힘차게 악기를 연주했습니다(27-28절). 그리고 다윗은 앞장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뛰어 놀았습니다(29절).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오면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여 장엄한 시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10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시 24:7-10).

그렇습니다. 예배는 즐거운 잔치요 축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뼉 치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역동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밝게 드려야 합니다. 신나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불교는 슬픔에 잠긴 초상집입니다. 유교는 웃음이 없는 제삿집입니다. 이슬람교는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입니다.
장차 있을 하늘의 예배도 황홀한 축제입니다. 거대한 축제입니다(계 7:9-10). 예배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기쁨과 잔치와 축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자만이 갖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배가 즐겁고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왕비였던 미갈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나아가 춤추며 예배하는 다윗을 경멸하다가(15:29) 일평생 자식이 없는 저주를 받았습니다(삼하 6:23). 그렇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 성공하면 인생 또한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전대미문의 자연재해와 질병, 전쟁 등으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가가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침체 회복이 우선이 아니라, 생활고를 해결하기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먼저 회복할 때입니다. 예배가 곧 축복이기 때문입니다(민 6:24-26).

우리 모두 첫째,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십시다. 둘째,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드리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마지막으로 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며 보다 큰 인생의 도약과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